

해계모니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와 시민 미디어:

그람시의 시민사회와 유기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임영옥

(광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I.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시민사회란 국가라는 또 하나의 거대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장이며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활동이 조직화되어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한 양식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는 서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개념으로 정치 사회(국가)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경제적, 문화적 자율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시민사회가 중요해지고 시민운동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국가에 의한 사회 변혁과 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되기 어렵고, 또한 서구 사회에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혁명을 이루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 국가의 건설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주의 이행 전략을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국가 중심적인 해방 전략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노동자 중심의 노조운동이 국가의 장악을 통

한 사회 변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노조운동은 퇴조를 맛보게 되고 오히려 신중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대되고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자운동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여성 문제, 반전반핵 문제, 환경 문제, 도시와 지역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로크와 루소, 헤겔, 마르크스 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의 논의를 전개한 것은 그람시와 하버마스이다. 언론의 연구에서도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언론에 적용한 논문들은 상당히 있다.¹⁾ 이들 연구들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언론에 적용시키며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자본주의적 속성 때문에 수용자를 시민으로 여기기보다는 소비자로 간주하여 공론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론을 통한 공적 영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언론의 연구에 비교적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특히 언론의 영역에 중요한 유기적 지식인 개념 등을 언론에 적용시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그람시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논의는 적지 않았으나 이를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

1) 문병훈(1996), 「하버마스의 규범적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그 언론학적 수용」, 《한국언론학보》 가을호; 이수영(1997), 「공론장으로서의 한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한국언론학보》 겨울호; 김택환(1994), 「시민사회 저널리즘과 공정거래법」, 《한국언론학보》 봄호; 김택환(1996), 「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에 따른 방송법제 연구: 민주적 공론구조를 위하여」, 《한국언론학보》 가을호; 윤영철(1995), 「공공성과 다양성을 위한 방송정책: 뉴미디어와 공공영역의 창조」, 서울YMCA,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시청자운동과 뉴미디어, 11월; 윤영철(199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가을호; 강태완(1997), 「미디어 구조의 변화와 공적 영역의 복구」,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언론》 제9호

으로 발전시킨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그 초점을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과 유기적 지식인에 의한 반 헤게모니 창출의 장으로서의 시민 미디어에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① 시민사회는 왜 중요하고 시민사회의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헤겔과 마르크스의 시민사회 논의와 그람시의 시민사회관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람시의 시민사회관이 왜 중요한가.
- ②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은 무엇이며,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은 어떻게 언론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 ③ 시민 미디어는 무엇을 지향하며 구체적인 시민 미디어의 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내용과 한계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또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언론에 적용되느냐의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주목하여 시민사회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언론에 적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 미디어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논문의 진행을 보면 1절에서는 연구 문제와 목적을 제시하고 논문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2절은 근대적인 시민사회론을 전개한 헤겔의 시민사회 논의, 그리고 마르크스와 그람시의 시민사회관을 설명하였다. 그람시의 시민사회 논의에서는 그람시 시민사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헤게모니와 동의 그리고 진지전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시민

운동의 당위성과 방향 등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3절에서는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헤게모니의 개념이 행사되는 영역으로서 언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언론의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을 집중 논의한다. 유기적 지식인은 언론의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유기적 지식인은 그들의 역할에 따라 자본과 권력에 봉사할 수 있고 사회 변혁을 위한 시민 미디어에 종사할 수도 있다. 유기적 지식인과 언론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다.

4절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지배 세력과 기득권 층에 대항하여 반 헤게모니를 창출할 수 있는 시민 미디어의 영역을 방송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 대안을 당위론적으로만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한계로는 시민사회 논의에 있어서 서구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루어 한국 시민사회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지 못한 가운데 한국 언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구체적 분석을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것은 그 논의 자체로 또 다른 논문 한편이 구성될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당위성만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한계로는 시민 미디어의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의 소개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위성에만 그친 점이다. 이 또한 다른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방대한 양이고 중요한 영역이라 이 논문에서는 그 중요성과 당위성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다룰 수밖에 없었다.

II. 시민사회의 논의

1. 헤겔의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국가와 뚜렷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헤겔과 마르크스, 그람시에 의해서이다. 오늘날 흔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 대립되

는 개념의 시민사회는 바로 이들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헤겔은 시민사회를 개인들의 욕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집단을 이룬 개인들은 자신만 알고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려는 개별성의 극과 동시에 실제적인 것을 알고 의식하는 보편성의 극을 자기 내에 포함하고 있다고 상정한다. 이때 개별성의 극은 시민사회에서 발현되고 보편성의 극은 적능단체 등을 통하여 보편이성인 국가와 연결된다고 하였다.²⁾ 헤겔은 보편적인 원리에 기초한 '정치사회'인 국가와 대비되는 사회의 구성부분으로 시민사회를 구분했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사회성원들의 '본능'과 특수한 욕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인 자기해체의 속성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이성적인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는 인간이 이성에 합치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직이 된다.³⁾ 헤겔은 개인들은 보편적 이기주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실체에 의하여 개인들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는 어떤 특수한 목적들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절대정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에 의하여 시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헤겔은 시민사회를 개인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오히려 이러한 개인들의 탐욕적인 욕망은 이성적인 국가를 통해서 극복된다고 파악하였다.

2. 마르크스의 시민사회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주로 물질적 관계를 통해 파악되었고 노동, 사적 소유, 이기적인 경쟁이 특징인 경제영역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인 모순을 발생시키는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2) 나혜심(1993), 「맑스의 시민사회관」, 노명식 외 저, 『시민계급과 시민사회』, 한울, p.97.

3) 신광영(1991),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경제와사회》 겨울호, 한울, p.15.

마르크스의 시민사회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2분법적 구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사회(=시민사회)의 개념은 경제사회를 의미했으며, 사회적인 것을 모두 경제영역으로 보거나 혹은 경제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국가를 이성적인 실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억압기구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는 경찰, 군대, 관료기구, 사법부, 입법부 등을 통하여 노동자 계급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국가는 헤겔이 이해하고 있는 이성적인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가 파악하는 시민사회는 일차적으로는 소외된 개인으로 분열되고 이차적으로는 부르주아지 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대립적인 구조로 나타나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모순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소외가 혁명을 통해서 지양된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변화를 물질 관계에 의해 규정하면서 그 물질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부르주아가 대표하는 시민사회는 자본의 관계에 의해 설명되는 관계 그 자체가 되었다. 결국 시민사회는 부르주아적 자본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르주아사회가 되었다. 그는 물질적 관계 총체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18세기라는 새로운 사회-시민혁명을 통하여 시민사회를 형성한-의 모순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모순이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의 논의의 시작은 시민사회가 이미 부르주아사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였다. 마르크스에게 부르주아사회는 쥐고 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⁵⁾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며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마

4) 신광영(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평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p.91.

5) 나혜심, 앞의 글, pp.112-113.

르크스에게 시민사회는 자본을 둘러싼 관계로 구성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민의 영역을 상실한 경제적 관계내의 부르주아사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그람시의 시민사회와 헤게모니

그람시는 마르크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논의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바라보았다면 그람시는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파악하였다. 그람시는 상부구조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또는 국가)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사적인 것으로 일컬어지는 기관들이나 조직들의 집합체로서 지배집단이 행사하는 헤게모니의 기능이 수행되는 영역이고, 후자는 국가의 영역으로서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해 행사되는 직접지배와 법, 명령 등의 강제력이 행해지는 영역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부구조를 두 가지의 '차원'으로 고정시키는 일이다. 그 하나는 우리가 '시민사회'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흔히 '사적'이라 불리는 조직체들의 총체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사회' 또는 '국가'의 차원이다. 이들 두 차원들은 한편으론 지배집단이 사회를 통하여 행사하는 '헤게모니적' 기능에 상응하며, 또 다른 한편으론 국가와 '법률적' 정부를 통하여 행사되는 '직접적 지배' 또는 '명령'에 상응한다.⁶⁾

마틴 카노이에 의하면 그람시의 시민사회는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관계, 정신적, 지적 생활의 복합체라고 하면서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은 하부구조라기보다는 그 관계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하였다.⁷⁾ 그렇지만 그람시의 시민사회는 단순한 상부구조의 개념

6) A. Gramsci(1982),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p.12.

7) M. Carnoy(1884), *The State and Political Theo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만은 아니다. 그람시의 시민사회 논의에 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사회의 성격에 관한 것인데 그람시는 시민사회를 상부구조의 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상부구조의 기반, 즉 상부구조적 토대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은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사회적 관계와 영역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람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는 경제적 관계만큼이나 강력한 실천력 규정력인 동의의 계기나 지도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람시의 시민사회 내에는 경제력 관계뿐만 아니라 상부구조적인 관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부구조적인 관계는 경제적 관계와 같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⁸⁾

이러한 관계들은 바로 헤게모니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윤리적·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왜냐하면 헤게모니가 비록 윤리적,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경제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적 활동의 결정적인 핵심에서 지도적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결정적 기능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이 주장이 헤게모니의 개념을 경제영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헤게모니란 어디까지나 경제적 계급지배에서 빚어지는 이해관심의 충돌과 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정치권력적 계급지배를 매개해주는 다른 하나의 계급지배 메커니즘이다. 헤게모니는 순수한 지적·도덕적 사안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심에 기초하여 이것을 조정하며, 계급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해주거나 뒷받침해주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헤게모니는 동시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경제 및 정

Press(이재덕 외 옮김, 1985, 『국가와 정치이론』, 한울, p.84).

8) 허범구(1992), 「그람시의 시민사회관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p.48.

9) A. Gramsci, *op. cit.*, p.161.

치영역, 나아가서는 '계급' 및 '정치사회' 영역의 구분을 '지양'하여 통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¹⁰⁾

그람시는 강제로서의 '지배'와 동의 혹은 합의에 기초한 '지도'를 구별하고, 전자는 억압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반면 후자는 헤게모니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헤게모니는 "특정한 생활양식과 사고가 지배하는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한다. 이 질서 속에서 현실에 대한 단일한 개념이 전체 사회에 만연된다. 즉, 모든 제도적·사적 표현체들 속에 그 정신을 반영하는 취향과 도덕, 관습과 종교 및 정치의 원칙들이 확산되며, 이것이 사회관계 속에도, 특히 지적·도덕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관계들 속에도 확산된다." 따라서 헤게모니란 한 계급이나 집단이 타 계급들을 강제력보다는 합의를 통해 압도하는 현상을 말한다.¹¹⁾ 즉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종속계급을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취향과 도덕, 관습과 종교' 같은 원칙들을 통하여 지적 및 도덕적 지도력도 확보하여야 한다. '지적·도덕적' 우위라는 개념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에서 핵심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그람시 사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테제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 내에서 정치적으로 지배계급이 되기 이전에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영역이다. 결국 누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서구에서와 같이 부르주아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시민사회의 정복 없이는 사회변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상부구조 속에서 투쟁이 중요해지며 이러한 투쟁은 러시아에서와 같이 기동전이 중심

10) 유팔무(1991),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경제와사회》 겨울호, 한울, pp.44-45.

11) Femia, J.(1985), 「그람시 사상에 있어서 헤게모니와 의식」, 임영일 편저, 『국가·계급·헤게모니』, 풀빛, p.152.

12) 최장집(1985),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세계의 문학》, 봄호, p.43.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전을 축으로 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람시에게 있어서 사회변혁은 누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한 역할은 유기적 지식인들을 통해서 주도된다.

4.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시민사회와 이와 관련된 시민운동론은 그람시 이후에는 논의가 뜸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건설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주의 이행전략을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국가 중심적인 해방전략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복지국가 전략이 비판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복지국가는 시민사회영역을 확대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에 따라 자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시민사회 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노동자 중심의 노조운동이 국가의 장악을 통한 사회변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노조운동은 퇴조를 맞보는 반면 오히려 신 중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은 확대되게 되었다. 그람시의 개념을 빌리게 되면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장악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원래는 부르주아 계급의 독점적인 영역이었던 시민사회에 노동자 등도 참여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영역의 확장은 새로운 운동인 여성운동, 반전반핵운동, 환경보호운동, 지역운동 등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서구사회에서 계급운동의 침체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복지국가의 출현과 이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찾고 있다. 복지국가의 출현은 생산과 투자원리를 통한 경제성장, 자유주의적 복지정책에 기초한 분배구조개선,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를 통한 민주국가의 보호에 기초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이익집단과 정당 등이 지배적인 집합행위자들로 등장하고, 집합적 협상, 정당 경쟁, 대의적 정부가 사회·정치적 갈등 해결의 주도적인 기제로 활용된다.¹³⁾

그러나 복지국가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높은 세금과 복지기금은 국가의 재정위기를 불러온다. 정치적으로는 정당의 권위주의화와 관료의 증대는 의사결정의 형식적 제도화, 대중에 대한 정치적 조장을 낳는다. 이것이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참여의 통로를 폐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¹⁴⁾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시민사회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 본격화된 환경운동, 반전평화운동, 민권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제기했던 경제적 이슈나 계급적 이슈와는 전혀 다른 이슈들을 제기했다. 이러한 운동들이 제기한 이슈는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인 물질적 풍요의 증대가 곧 진보라는 것을 거부하며 종래의 서구적 합리성과 진보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¹⁵⁾ 즉 노동자나 노동자 계급이 주축으로 경제적·물질적인 풍요의 확대를 추구하였던 것에 비하여 정치적 자율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 계급적 운동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사회주의적(마르크스주의적) 이념성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좌파정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많은 나라의 경우, 좌파 지식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계급운동은 점차 위축되어 갔고 노동운동도 체제 내에서 안주되어가고 있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1979년 보수당의 집권은 노동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에 의하여 가능하였으며 1987년 선거에서도 숙련노동자의 대부분과 노조가입 노동자의 60% 이상이 노동당이 아닌 정

13) 김호기(1992),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사회》 여름호, 한울, pp.122-123.

14) 김호기, 위의 글, p.123.

15) 신광영, 앞의 글, p.28.

당에 투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운동의 차원에서는 1960년대의 학생운동을 고비로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이 점차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기존 사회운동의 중심이었던 노동운동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히려 환경운동을 주도 하던 독일 녹색당이 1983년 연방의회에 진출에 성공하여,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노동계급의 정치집단화가 이루어져 이들이 요구한 경제적·물질적 욕구가 상당히 충족되고 정치적으로도 정치적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었다. 시민사회운동은 이러한 경제적·물질적 풍요만이 인간의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새로운 삶의 추구, 특히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운동의 주체도 노동계급에서 탈 계급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마르크스주의에서 탈마르크스주의적 내지 전통마르크스주의에서의 이탈로 변모하고 있다.

5. 한국에서의 시민운동과 방향

서구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은 이제 한국에 도입되어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제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운동의 방식 도입,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국가기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수단으로의 활용 등 많은 유용성과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거치며 성장해온 서구의 시민사회 개념이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되기에는 한국의 역사적인 조건이 다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운동도 운동의 주체, 방향, 전략, 연대의 수준, 전망 등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한다.¹⁶⁾

한국의 시민사회는 상당한 양적 성장(예컨대, 법적 시민권의 보장, 생활

16) 한국 시민사회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임동욱(1995), 「한국시민언론운동의 성격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언론학보》 봄호를 참조하였다.

양식과 사회조직의 분화 등)의 범주에 머물러 있을 뿐, 질적 성숙(예컨대 철저한 권력분산의 보편화, 시장 참여의 제도화, 시민의식의 내면화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 틀은 그런대로 유지·보완해 나가고 있으나, 실질적 민주주의(혹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규범적 내면화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¹⁷⁾

서구의 시민사회는 복지국가의 확대에 힘입어 정치적으로는 각종의 이익집단과 정치결사체가 자유로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제도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욕구가 일정정도 반영되는 장을 마련하여왔고, 경제적으로는 복지정책에 의한 분배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서구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어떠한 집단도 정치의 주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서유럽의 각 국가들은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적 요구들을 참정권의 확대와 정치참여로 무마하면서 사회적 위기를 모면하였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정치적 참여는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서유럽의 노동계급들은 경제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의 복지국가의 품 안으로,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으로 편입되어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게 되었다. 서유럽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여왔지만,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여 기존의 노동조합 중심의 정치성이 강한 사회변혁보다는 비노동조합 중심의 비정치적·비계급 운동, 중산층 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시민사회가 각 정파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라는 자율적인 정치공간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여왔다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시민사회가 활동할

17) 김성국(1998),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임희섭·양종희 공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pp.39-40.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우선 시민사회의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정치적인 영역이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의 성원들은 투표권의 부여로 소극적인 형태의 정치적 참여는 열려 있으나,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에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노동조합에 의한 정치적 참여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의한 정치자금의 제공도 금지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행사할 공간이 막혀 있으며 고립 분산적이고 비조직적인 노동자 개인의 참여만이 가능하다. 의회민주주의의 자체가 표를 모아오는 정치 게임이기 때문에¹⁸⁾ 조직과 자본력이 극히 부족한 노동자 개개인의 정치참여는 이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민사회 자율영역의 물리적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한국 시민사회 운동은 오히려 시민사회의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의 확보, 예를 들어 왜곡된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시민사회 영역의 확대, 복지정책의 확산, 노동조합이나 혁신 세력(사회주의자들을 포함)이 자유로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조성, 시민사회의 성원들과 조직이 자유롭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의 마련(보안법, 안기부법, 사회안전법, 노동관계법 등의 시민사회를 제약하는 국가 기제의 철폐)에 최우선과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운동의 목표, 방법, 노동계급과의 관계 설정 등이 서유럽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인 시민은 국가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한

18) 손호철은 서유럽의 의회제도를 분석하면서 서유럽에서의 노동당이나 사민당들도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선거참여는 복지정책 등의 중산층 중심의 단기정책을 추구하는 수의 게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호철(1992),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경제와사회》 봄호, pp.45-53 참조

국사회에서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운동이 과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좀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하고 궁극적인 방법이며 이외의 다른 운동은 이론적인 결합에서든지 아니면 현실적이지 못해서 이 시대에 필요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¹⁹⁾

필자의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견해는 한완상이 1992년에 전개한 시민사회운동의 당위성과 전망을 받아들여 노동운동을 배제하는 운동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시민사회운동은 그 자체로서 완결될 수 있는 궁극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혁명 같은 기동전적 전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중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²⁰⁾ 그렇다고 이 운동이 노동운동의 당위성을 부정하거나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운동이 ‘노동자계급 주도의 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그것이 계급혁명을 통한 근본처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단하게 개량주의적 선택’이라고 몰아쳐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 함께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지양하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말은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이해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운동도 현 단계에서 필요한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사회공간의 확장을 위한 개량주의적 사회운동’이지만 그 속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가능성과 더불어 독점강화와 종속심화를 제도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진보적 운동의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는’²¹⁾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시민운동의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①

19) 이미 수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시민사회의 성격과 시민운동의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벌어져왔고 지금도 이와 같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임희섭, 양종희 공편 (1998),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 운동』, 나남, 《경제와사회》 1995년 봄호 참조

20) 한완상(1992),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p.21.

21) 한완상, 위의 글, p.23.

운동의 주체와 연대의 수준 ② 운동의 내용과 성격 ③ 운동의 목표와 전망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운동주체의 설정에서 보면 서구의 시민운동은 탈계급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연계를 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의 성격상 진보적 지식인이나 의식 있는 시민이 주체가 되지만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와의 연계는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하다. 둘째, 운동의 내용과 성격에서 미시적이고 형식적인 요구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총체적 입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의 경우도 생산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비영역에서의 요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언론의 경우에도 내용의 모니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의 추구가 있어야 하고 이의 시정도 생산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셋째, 운동의 목표를 현 체제의 테두리 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III. 시민사회와 시민언론: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과 대안언론

현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 개념을 확대시킨 그람시는 오늘날의 시민사회 방향에 대하여 많은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람시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헤게모니를 통하여 지배가 가능하다. 현대자본주의에 있어서 국가는 단순히 강압적인 기제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라는 강건한 참호체계에 의하여 지배가 계속 유지된다. 즉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시민사회가 있기에 자본주의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부르주아의 헤게모니만이 가능한 곳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변혁은 누

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데올로기, 문화를 통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아래로는 경제 영역과, 위로는 국가 공권력이 집행되는 국가영역과 구별되는 이 영역에는 매스컴, 학교, 교회 등 경제 외적인 민간부문 또는 사적 생활영역들이 모두 포함된다.²²⁾

시민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람시는 유기적인 지식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기적인 지식인은 전통적인 지식인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경제적인 생산 영역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독자적인 영역기반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집단은 자기 집단에게 동질성을 부여하고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도 자기 집단의 기능을 이해하는 하나 이상의 지식인 계층을 자기 계급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다.²³⁾

지식인들이 그들 자신의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급이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되는 지식인을 만들어낸다. 즉 지식인이 어느 계급을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지식인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본가는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지식인들을 만들어낸다. “자본주의적 기업가는 자신 주위에 산업 기술자, 경제 전문가, 새로운 문화와 법체계의 조직가들을 만들어낸다.”²⁴⁾ 오늘날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자본가의 주위에 포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경련과 경총련 그리고 재벌 기업들에는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의 지식인들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유기적 지식인들이다. 이뿐만

22) 유팔무(1995),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p.71.

23) A. Gramsci, *op. cit.*, p.5.

24) A. Gramsci, *op. cit.*, p.5.

이 아니다. 한국의 재벌들은 직접 문화, 교육, 언론 조직을 장악해서 지식인들을 자본의 이해에 부합되는 유기적 지식인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람시는 지식인이 오직 학식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철학자, 예술가, 성직자, 교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는 전통적이고 세속화된 지식인관을 거부했다. “모든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식인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식인과 비지식인을 구분할 때, 우리는 지식인들이 수행하는 전문적 범주에서의 즉각적인 사회적 기능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그것은 지식인들의 특징적인 전문적 활동—그것이 지적인 활동이거나 육체적·정신적 노력이던 간에—이 비중되어지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다.”²⁵⁾ 그람시의 지식인관은 지식인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보다는 그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했던 것이다. 즉 지식인들이 사회구성체 안에서 계급성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어떤 계급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 하는 사회적 기능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사회·정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어느 계급의 유기적 지식인 집단이 된다는 것은 특정의 생산양식에 독특한 기술능력을 구체화하고 지도적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은 전체로서의 사회경제적 구성체로 표현되는 전체성의 관점에서만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²⁶⁾ 여기서 유기적 지식인은 결코 한 특정 계층이나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행동, 보편과 특수, 인식과 감정의 양극면이 변증법적 통일이 되는 실천의 지성인들이다. 그람시가 표상하는 유기적 지식인은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으로 기본계급들과 연대하여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는 유기적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²⁷⁾ 유기적 지식인은 그들 스스로가 특정 계층이나 계급을 형성하기보다는 어느 특정 계

25) A. Gramsci, *op. cit.*, p.9.

26) A. Sasson, S., *Approaches to Gramsci*, 최우길 역(1984), 『그람시와 혁명전략』, 녹두, p.109.

27) 김택환(1996), 「그람시의 언론사상」, 《한국언론학보》 여름호, p.142.

층이나 계급에 대해 지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그 계급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성을 부여하여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는 실천적 지식인들인 것이다.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마도 ‘정당화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은 이 능력을 통해서 자기 계급의 특수이익을 전체 사회의 이익으로 대변한다. 역사상 특정 시점에서는 특수이익과 일반이익이 일치할 수도 있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이 곧 그런 경우로 그람시는 프랑스 혁명을 가능케 하였던 지식인의 역할을 자주 언급하였다.²⁸⁾ 시민사회는 이들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식인들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지식인들의 중요한 기능인 정당화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상이한 사회 집단들을 동질화하여 하나의 역사적 블록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역사적 블록의 형성은 계급이나 사회세력들의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 동맹 내에서 각각의 사회적 역할들이 달라지며 정치권력의 역할들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지식인과 민중, 지도자와 피지도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변증법적이고 유기적인 제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변혁을 앞당기는 것이다. 유기적 지식인은 이러한 역사적 블록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 획득을 위한 전략은 ‘진지전’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진지전은 서구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복합적 구도를 고려하여 채택된 그람시의 사회 변혁 전략이다. 진지전이란 강제적인 국가권력과 국가 기구를 대상으로 하였던 러시아 혁명과 같은 기동전을 지양하고 시민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와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장기전이다. 그람시의 이러한 지적은 시민사회에서 대중들을 지도할 수 있는 헤게모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결국 진지전이란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의 헤

28) J. Karabel(1985), 「그람시와 지식인 문제」, 임영일 편저, 『국가·계급·헤게모니』, 풀빛, p.187.

게모니에 대항하는 헤게모니를 창출하기 위해 벌이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강조한 것이다.

로저 시몬은 만약 그람시가 20세기 자본가 계급의 유기적 지식인들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었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하며 시민사회에서의 유기적 지식으로서 언론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²⁹⁾

- ① 생산영역: 경영자, 엔지니어, 기술자 등
- ② 시민사회: 정치가, 작가, 학자, 방송인, 기자 등
- ③ 국가기구: 공무원, 군대의 장교, 법관, 지방 관리 등

그람시도 이데올로기적 토대의 가장 역동적인 부분의 하나로서 언론을 꼽고 있다. “언론이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즉 도서관, 학교, 여러 종류의 서클, 클럽으로부터 건축, 거리, 시설물, 거리 이름에 이르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한다.”³⁰⁾ 물론 언론을 유일한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영역으로만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이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라고 하여 언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변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며 언론인은 시민사회에서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유기적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람시는 언론의 역할을 “그 나라에 존재하거나 형성되어왔던 모든 지적인 운동들과 조직들을 추동하고 모니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³¹⁾ 이 말은 언론인들이 지적인 활동들을 추동해내는 중심적인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언론의 역할을 시민사회에서의 핵심 영역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언론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그람시는 이를 상식과 참호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람시에 의하면 ‘참호’를 얻기 위한

29) R. Simon, 『헤게모니와 혁명전략』, 김주환 역(1985), 『그람시의 정치사상』, 청사, p.146.

30) S. Kebir, *Antonio Gramsci Zivilgesellschaft*, 이철규 역(1994), 『안토니오 그람시의 시민사회』, 백의, p.22.

31) A. Gramsci(1985), *Selections from Cultural Writing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p.405.

자본가, 기득권층	시민사회	변혁세력
유기적 지식인		유기적 지식인
지배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헤게모니의 장악	진보언론 (노동자신문, 한겨레신문, 공공 액세스 채널 등)
(지배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언론인		(사회변혁을 위해 봉사하는) 언론인
지배언론, 보수언론		시민언론, 진보언론

투쟁은 상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상식이 대중을 사로잡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였다. 상식은 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무비판적이고 무의식적인 형식이다. 그람시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에 대하여 철학자이며 여성들도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노동자가 자기의 경험을 체계화하는 것은 상식을 통해서이다. 상식이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도전의 영역이기도 하다.³²⁾ 노동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그들 자신이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 사물을 이해하고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다. 상식에 의해 노동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거나 저항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규정되고 형성되는 곳은 교육기관, 가정, 교회, 언론 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람시는 언론을 상식과 여론이 주도하는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헤게모니의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언론은 상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식의 판단 위에서 참호를 얻기 위한 투쟁이 이뤄지며 이 참호를 얻기 위한 영역이 바로 헤게모니의 영역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헤게모니와 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언론은 헤게모니의 전선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참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32) R. Simon, 『헤게모니와 혁명전략』, 로저 시몬 외 저, 김주환 역(1985), 『그람시의 정치사상』, 청사, p.110-111.

앞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자본가들은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유기적 지식인들을 만들어냈다. 언론의 영역에서도 자본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식인들이 있고 이는 지배 언론으로 구체화된다. 그람시는 이를 부르주아 계급 신문이라고 규정하고 이들 부르주아 신문은 자본가와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였다. 부르주아 신문은 정보수집과 편집 과정 속에서 진실을 왜곡하게 된다. 만약 언론기업에 손실이 온다면 기업가들은 신문을 폐간시킬 것이다. 이것을 바로 그람시는 '언론적 상업정신'이라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부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 언론 사주는 언론인들의 윤리, 이상, 정치적 확산을 재력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산에 따라서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게 된다고 그람시는 설명하고 있다.³³⁾ 부르주아 신문은 자본가와 지배계급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신문의 지면과 편집을 통해서 가능한 한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방해하려고 한다. 그람시가 옥중 수고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이탈리아의 모든 언론은 파시스트 국가와 이 국가를 지원하고 있던 대재벌의 통제하에 들어가 파시즘과 협력하고 있었으며, 1927년부터 모든 저널리스트들은 의무적으로 파쇼적인 언론인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했다.³⁴⁾ 한국의 경우에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경제 정의와 사회 분배 등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지면을 통해 내보내면서 재벌과 기득권 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변혁 세력을 위해 봉사하는 유기적 지식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배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사회의 변혁을 위해 반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해낸다. 이들은 언론의 영역에서도 지배 언론에 대항하여 시민사회 내에서 사회의 변혁을 위한 유기적 지식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에서의 참호 속에서 사회의 변혁을 위한 상식과 여론을 환기시키며

33) 김택환(1996), 「그람시의 언론사상」, <한국언론학보> 여름호, 제37호, p.151.

34) A. Gramsci,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화: 대중문화/언어학/저널리즘』, 로마 그람시 연구소 편, 조형준 옮김(1995), 새물결, p.258.

대항 이데올로기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언론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하고 계급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변혁적인 유기적 지식인들이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언론인들은 지배 헤게모니의 창출을 위하여 자본가와 기득권 층을 위하여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유기적인 지식인과 반대로 그 사회에서 사회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지식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IV. 한국에서의 시민 미디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앞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시민 미디어는 변혁적이고 진보적인 유기적 지식인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하여 사회의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강화와 자본의 위력이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마르크스나 레닌이 상정하였던 기동전을 통한 혁명의 가능성은 요원하게 보인다. 오히려 그람시가 상정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진지전의 개념이 오늘날의 현실과 훨씬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할 수 있는 지형과 공간을 확보하고 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기적 지식인을 많이 양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대항 헤게모니 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시민언론운동의 확산

시민언론운동은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의식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지식과 역량을 결집하여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앞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특히 언

론은 일반 독자들과 수용자들에게 상식과 여론을 환기시켜 이데올로기 지형의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시민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시민언론운동에 의한 언론의 감시나 비판 등은 언론의 속성상 지식인들이 지배계급의 이해와 이익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을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여 언론 자체를 지배계급에 편입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언론운동은 이러한 지식인들이 지배계급 쪽으로 끊임 없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시민언론운동은 매체교육이나 언론 모니터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언론의 중요성을 알리고 언론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반 헤게모니 지형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매체교육은 일종의 수용자 의식화운동으로 시민언론운동 단체들은 각종의 언론학교를 개최하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용자 의식화운동은 시청자가 언론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언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테크닉을 교육하는 것이다. 시청자 의식화운동은 수용자가 매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즉 매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구조적 특성, 미디어의 기능, 내용물의 생산과정 메커니즘,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적인 측면 등 미디어 전반을 이해함으로써 미디어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이 시청자 운동에 참여하여 이들을 반 헤게모니 지형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니터 운동은 미디어의 내용물을 모니터하거나 비평함으로써 언론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운동이다. 한국에서의 시민언론운동은 모니터 운동이라 불릴 만큼 모니터 중심의 운동이 주를 이어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YMCA, YWCA, 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모니터회, 여성민우회 주

부분과 모니터 팀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계속해왔거나 지속하고 있다.

이들 모니터운동의 특색은 학생들이나 주부, 회사원들이 중심이 되어 언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모니터하여 언론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내용을 시정하는 것이다. 모니터 중심의 활동은 한국의 언론이 오랫동안 왜곡, 편파, 불공정 보도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모니터 활동이 언론에 의한 일방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보도 행위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일반 시민들이나 여성들(주부를 포함한)이 쉽사리 참여하기 어려웠던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를 통한 능동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광범위한 지형의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정권의 타도나 정치·사회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위한 정치 운동이나 노동 운동 등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웠던 여건을 감안하면 모니터 운동에의 참여는 그들에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시민 미디어의 확보

시민 미디어는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시민 주도형의 대안 언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시민 미디어는 지금까지의 채널이 정권과 대자본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진보적인 유기적 지식인과 의식 있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의 언론은 대자본가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이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뉴스 등 여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신문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상업 텔레비전의 방송체계는 매우 비싼 방송 시간을 살 수 있는 기업이나 자본가들에게 광고를 팔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가 직접 간접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더글러스 켈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힘있는 집단들에 의한 언론의 통제

로 인해 어떤 쟁점들은 적절하게 보도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관점들은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바로 부정적으로 보도되어야 할 기업이 가장 큰 군수산업체이고, 동시에 가장 원자력 발전소 제작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GE/NBC가 어떻게 이들 원자력 발전소와 군산복합체를 비판적으로 보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미국 텔레비전 방송은 미디어 산업과 국가를 통제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점차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⁵⁾

시민 미디어는 자본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기존의 매체에서 벗어나서 소외 계층과 소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매체이다. 이러한 시도는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주로 작은 매체를 이용하여 커뮤니티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특정 프로그램 또는 소지역 신문의 형태로 시민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미디어의 목적은 영국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유닛'를 담당하고 있는 제러미 김슨이 언급했듯이 "적게 대표되었거나 잘못 대표되었거나 또는 전혀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³⁶⁾ 즉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 계층이나 소외 계층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이들 대안 언론의 목적이다.

더글러스 켈너는 시민 미디어의 하나로 공공 액세스 텔레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공 액세스 텔레비전은 몇몇 대안적 매체 중 하나로서 방송미디어 사용을 대중 민주주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공공 액세스 텔레비전의 급속한 확산으로 보수적 주류 텔레비전 방송에 진보주의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³⁷⁾ 이는 그람시가 주장한 유기적 지식인들이 대

35) D. Kellner, 『텔레비전 민주주의의 위기』, 강상욱·전희락 공역(1995), 이진출판사, pp.292-293.

36) J. Dovey(1993), "Old Dogs and New Tricks: Access Television in the U.K.," Tony Downmunt(ed.), *Channels of Resistance*, London: BFI Publishing, p.164.

37) 더글러스 켈너, 앞의 책, p.333.

항 해계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공공 액세스 텔레비전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공공 액세스 채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에서는 공공 액세스 텔레비전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더글러스 켈너는 급속한 공공 액세스 텔레비전의 확산이 지금까지 주류 텔레비전을 지배하여왔던 보수적 편성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였다. 혁신적인 액세스 프로그램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메디슨, 오스틴에서 정기적으로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으며 아마도 미국 전역에 걸쳐 200 이상의 도시와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다.³⁸⁾

시민 미디어들의 연합체인 Paper Tiger Television은 대안 비디오 프로덕션, 대안 라디오 프로덕션, 대안 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민 미디어의 하나인 PEG(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 Access on Cable Television이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미시건, 텍사스를 포함한 24개 주에서 활동중이다. 이들 PEG Access Television은 국제적으로도 오스트레리아, 캐나다, 스웨덴과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PEG Access Television은 1972년 FCC가 미국에 있는 100개의 규모가 큰 케이블텔레비전은 정부와 교육 목적, 또한 무엇보다도 공공 액세스를 위해 채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1977년부터는 모든 케이블텔레비전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다.³⁹⁾ PEG Access Television은 교회, 유대인, 라이온스와 로터리 클럽 등의 사회 단체, 지방 정치 단체, 고등학교와 대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 공동체 조직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EG access center를 통하여 수천의 공동체 그룹들, 백

38) D. Kellner(1992), "Public-Access Television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J. Wasco and V. Mosco(eds.), *Democratic Communication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p.100.

39) D. Kellner, *op. cit.*, p.101.

만명 정도의 개인들이 일주일에 2만 시간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1992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지역 공동체의 약 15%가 PEG access 서비스를 받고 있다.⁴⁰⁾

유럽에서도 ‘유럽 개방 채널을 위하여’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유럽 각국의 의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접근과 참여가 민주사회를 위해 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여⁴¹⁾ 공공 액세스 채널을 반 헤게모니 창출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공공 액세스 채널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정체성과 유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보이고 있지만 제작 참여를 통한 대중 스스로의 비판적 인식의 발전, 그리고 그러한 자율적인 제작의 결과물이 지니는 민주적 토론의 활성화 등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미디어 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특히 지금까지 기존의 지배적인 기득권층과 보수적인 세력들에게 장악되어서 시민사회에서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창출하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 액세스 채널은 대중들 스스로가 직접 참여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유기적 지식인들이 그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공공 액세스 채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⁴³⁾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는 시청자 접근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고(II, 4, 나. 시청자 참여 구현 방안), 여당의 방송법안('99.7.2) 제70

40) <http://www.alliancecm.org/acminfo.htm>

41) 김명준(1998), 「미디어 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뉴미디어저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5월, p.19.

42) 김명준, 위의 글, p.22.

43) 최영목, 「퍼블릭 액세스 TV의 제도적 정착 방안」, 한국방송진흥원 주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시사회 토론회 자료, www.kbi.re.kr; 강만석, 「시민미디어라는 표현의 세계」, 한국방송진흥원 주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시사회 토론회 자료, www.kbi.re.kr.

조 7항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혹은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 자체가 표류하고 있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있고, 방송위원회 세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 액세스 채널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할 것인가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채널만 확보된다고 해서 액세스 프로그램이 제작, 방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센터의 설립과 개방에 대한 조항의 법제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공공 액세스 채널이나 프로그램의 확보는 한국에서도 반 헤게모니 창출을 위한 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시민 미디어에 대한 논의가 노동자나 주변인 혹은 일반 대중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시민 미디어에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소수의 지식인, 사회적 명망가, 시민운동가, 기존 언론인 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 없는 시민 미디어’의 위험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⁴⁴⁾ 시민 언론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장의 역할을 하려면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의식 있는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공공 액세스 채널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반 헤게모니의 장과 유기적인 지식인도 생겨날 수 있다.

2) 대안매체로서의 PC통신과 인터넷

대안매체로서의 PC통신은 이미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운동 단체나 한총련 등이 PC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 헤게모니 창출을 위한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44) 강만석, 앞의 글, p.1.

가상 공간은 접근권이 개방되어 있고,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받으므로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⁴⁵⁾ 공론장으로 또는 반 헤게모니 창출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기업이나 국가 권력의 횡포에 대항하기 개인들이나 조직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반 헤게모니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과 외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노동조합 네트워크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등에 설치되어 활동중이며 범지구적 노동 네트워크도 국제산별노련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다.⁴⁶⁾

3) 시청자의 접근권 강화

시청자의 접근권 강화는 앞에서 언급한 국민주 방송이나 공공 액세스 채널에 비해 일반 시청자들의 참여나 접근이 제한적이고 소극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송이 전문 방송인들과 지배 세력에게만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송에의 접근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접근권의 확대는 시민 사회에서 진보적인 세력이 방송의 접근을 통하여 반 헤게모니를 확대해나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여지를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권의 강화는 직접적인 접근과 간접적인 접근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시민단체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지상파 채널이나 유선방송의 채널 혹은 위성 채널에 공공접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영국의 액세스 텔레비전 활동이 대표적인 예인데 BBC의 <Video Diary>, 채널 4의 <Free For All>,

45) 윤영철(199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가을호, 제43-1호, pp.191-192.

46) E. Lee, *Labour Movement and the Internet*,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1998), 『노동운동과 인터넷』, 한울.

BBC 2의 〈Open Space〉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방송사의 제작 시스템에 의존하기는 하나 제작과정과 모든 주도권, 최종 편집과정까지의 결정권이 접근자에게 있다.⁴⁷⁾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시청자의 코너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더욱 만들어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방송의 내용이나 형식을 제작자나 편성권자가 결정하여서 여전히 통제권이 방송의 기득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반 해계모니의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는 이미 방영된 보도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자원으로 보고 이미 방영된 뉴스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의 기록보관소에 보존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이미 1969년에 TV뉴스 보관소(TV news archive)를 반데빌트 대학에 설치함으로써 방송자료에 대한 공중의 접근권을 인정해왔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정보공개도 법률로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⁴⁸⁾

프로그램에의 접근이나 자료에의 접근은 의식 있는 시민이나 지식인들이 방송이나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접근의 확대는 시민사회 영역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에서 반 이데올로기와 반 해계모니 지형을 확대하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47) 방송개혁국민회의,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앞의 책, p.78.

48) 윤영철(1995), 「공공성과 다양성을 위한 방송 정책, 뉴미디어와 공공영역의 창조」, 서울YMCA,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시청자 운동과 뉴미디어』, 11월, p.46.

V. 맺는 말

오늘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언론의 영역에서도 시민언론운동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특히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사회론을 주창하였던 그람시의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과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과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이를 언론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언론은 헤게모니가 행사될 수 있는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람시 자신도 언론을 시민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부분의 하나로 보면서 시민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의 역할은 중요하다. 누가 그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방향이 자본가와 기득권자의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변혁 세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느냐의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헤게모니의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윤리적·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고 헤게모니의 개념을 경제 영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헤게모니란 어디까지나 경제적 계급 지배에서 빚어지는 이해 관심의 충돌과 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정치·권력적 계급 지배를 매개해주는 다른 하나의 계급 지배 메커니즘이다. 헤게모니는 순수한 지적·도덕적 사안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 관심에 기초하여 이것을 조정하며, 계급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해 주거나 뒷받침해주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유기적 지식인들은 각 계급이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되는 지식인을 만들어냄으로서 탄생된다. 즉 지식인이 어느 계급을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지식인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본가는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지식인들을 만들어낸다.

그람시는 지식인이 오직 학식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철학자, 예술가, 성직자, 교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는 전통적이고 세속화된 지식인관을 거부했다. 그람시의 지식인관은 지식인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보다는 그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했던 것이다. 즉 지식인들이 사회 구성체안에서 계급성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어떤 계급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 하는 사회적 기능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인들은 유기적인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시민 미디어는 변혁적인 유기적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변혁적인 유기적 지식인들은 시민 미디어의 영역을 많이 만들어내야 할 의무와 함께 시민 미디어에 종사하여 시민사회에서 반 헤게모니를 창출해내는 데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필자는 시민 미디어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간으로 대안 채널을 상정했다.

이상으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과 유기적인 지식인의 개념을 언론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해봤다. 그러나 구체적인 한국사회의 분석에 따른 적용이 아니라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람시의 이론을 적용시키는 한계를 노출시켰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의 시민 미디어 영역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그람시가 제기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그람시가 제기하였던 헤게모니와 유기적인 지식인의 개념을 언론에 적용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 참고문헌

- 강만석, 「시민미디어라는 표현의 세계」, 한국방송진흥원 주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시사회, 토론회 자료, www.kbi.re.kr.
- 김명준(1998), 「미디어 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뉴미디어 저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5월.
- 김성국(1998),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임희섭·양중희 공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 김택환(1994), 「시민사회 저널리즘과 공정거래법」, 《한국언론학보》 봄호 _____(1996a), 「그림시의 언론사상」, 《한국언론학보》 여름호 _____(1996b),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법제 연구: 민주적 공론구조를 위하여」, 《한국언론학보》 가을호.
- 김호기(1992),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사회》 여름호.
- 나혜심(1993), 「맑스의 시민사회관, 노명식 외 지음, 『시민계급과 시민사회』, 한울.
- 문병훈(1996), 「하버마스의 규범적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그 언론학적 수용」, 《한국언론학보》 가을호.
- 서정갑(1992), 「시민사회의 의의: 정치학적 시각」,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손호철(1992),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경제와사회》 봄호.
- 신광영(1991),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경제와사회》 겨울호.
- _____ (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유팔무, 「그림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경제와사회》 겨울호.
- 윤영철(198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회 분석을

-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가을호, 제43-1호
- _____(1995), 「공공성과 다양성을 위한 방송 정책: 뉴미디어와 공공 영역의 창조」, 서울YMCA,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시청자운동과 뉴미디어』, 11월.
- 이수영(1997), 「공론장으로서의 한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한국언론학보》 겨울호
- 임동욱(1995), 「한국시민연론운동의 성격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언론학보》 봄호
- 최영목, 「퍼블릭 액세스 TV의 제도적 정착 방안」, 한국방송진흥원 주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시사회, 토론회 자료, www.kbi.re.kr.
- 최장집(1985),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세계의 문학》 봄호
- 한완상(1992),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허범구(1992), 「그람시의 시민사회관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Carnoy, M.(1984), *The State and Political Theo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재덕 외 옮김(1985), 『국가와 정치이론』, 한울.
- Dovey, J.(1993), "Old Dogs and New Tricks: Access Television in the U.K.," Tony Dowmunt(ed.), *Channels of Resistance*, London: BFI Publishing.
- Femia, J., 「그람시 사상에 있어서 헤게모니와 의식」, 임영일 편저(1985), 『국가·계급·헤게모니』, 풀빛.
- Gramsci, A.(1982),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_____(1985), *Selections from Cultural Writing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_____,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화: 대중문화/언어학/저널리즘』, 로마
그람시 연구소 편, 조형준 옮김(1995), 새물결.
- Karabel, J., 「그람시와 지식인 문제」, 임영일 편저(1985), 『국가·계급·헤게
모니』, 풀빛.
- Kebir, S., *Antonio Gramsci Zivilgesellschaft*. 이철규 옮김(1994), 『안토니오 그
람시의 시민사회』, 백의.
- Kellner, D., 강상욱·전희락 공역(1995), 『텔레비전 민주주의 위기』, 이진출
판사.
- Kellner, D.(1992), "Public-Access Television and the Struggle for Demo-
cracy," in J. Wasco and V. Mosco(eds.), *Democratic Communication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 Lee, E., *Labour Movement and the Internet*.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1998),
『노동운동과 인터넷』, 한울.
- Sasson, A. S., *Approaches to Gramsci*. 최우길 역(1984), 『그람시와 혁명전략』,
녹두.
- Simon, R., 「헤게모니와 혁명전략」, 김주환 역(1985), 『그람시의 정치사상』,
청사.

<http://www.alliancecm.org/acminfo.htm>